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공무 국외 연수보고서

(2015. 5. 26 ~ 6.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 기 간 : 2015. 5. 26(화) ~ 6. 3(수) / 7박 9일
- 대상국가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 인 원 : 6명
- 보 고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 장	황 현 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부 의 장	김 광 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 획 총 무 위 원 장	백 종 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 원	오 광 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 원	장 재 성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 원	윤 정 민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 6 .

차 례

I . 연수개요2

1. 연수목적 / 2
2. 방문지역 및 일정 / 2
3. 세부 방문 일정 / 3
4. 명단 및 담당 업무 내용 / 4
5. 방문도시 위치도 / 4

II . 방문국 현황5

1. 핀란드 / 5
2. 스웨덴 / 7
3. 덴마크 / 10
4. 노르웨이 / 11

III . 주요기관 방문15

1. 헬싱기 Vantaan energia 쓰레기 소각장 / 16
2. 개 보호소(공원 등) / 20
3. 덴마크 의회 / 24
4. 자전거 보관대 / 28
5. 코펜하겐 복지센터 / 30
6. 오슬로 최대 농산물 시장 / 34
7. 청소차 / 34
8. 롬어린이집 / 36

IV . 연수 결과물42

국외연수 후기44

1. 연수개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 폭넓은 견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며, 각종 의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선진지 견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는 실제 그 나라의 선진행정과 방문국가의 우수성을 우리 지역 행정에 접목시켜 보거나 비교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함.

물론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으나 최소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해외시찰은 그 방문 목적이 명확해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임.

1. 연수목적

- 유럽의 선진화된 쓰레기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과 현황을 파악하고
- 덴마크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고
- 노르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맞벌이가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 현황을 살펴
- 선진행정 벤치마킹 분야를 발굴, 우리 구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방문지역 및 일정

- 대상국가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 기 간 : 2015. 5. 26(화) ~ 6. 3 (7박9일) ※ 세부일정표 참조
- 도시별 방문일정 : 4개 도시

나 라	날 짜
핀란드	5. 27
스웨덴	5. 28 ~ 5. 29
덴마크	5. 29
노르웨이	5. 30 ~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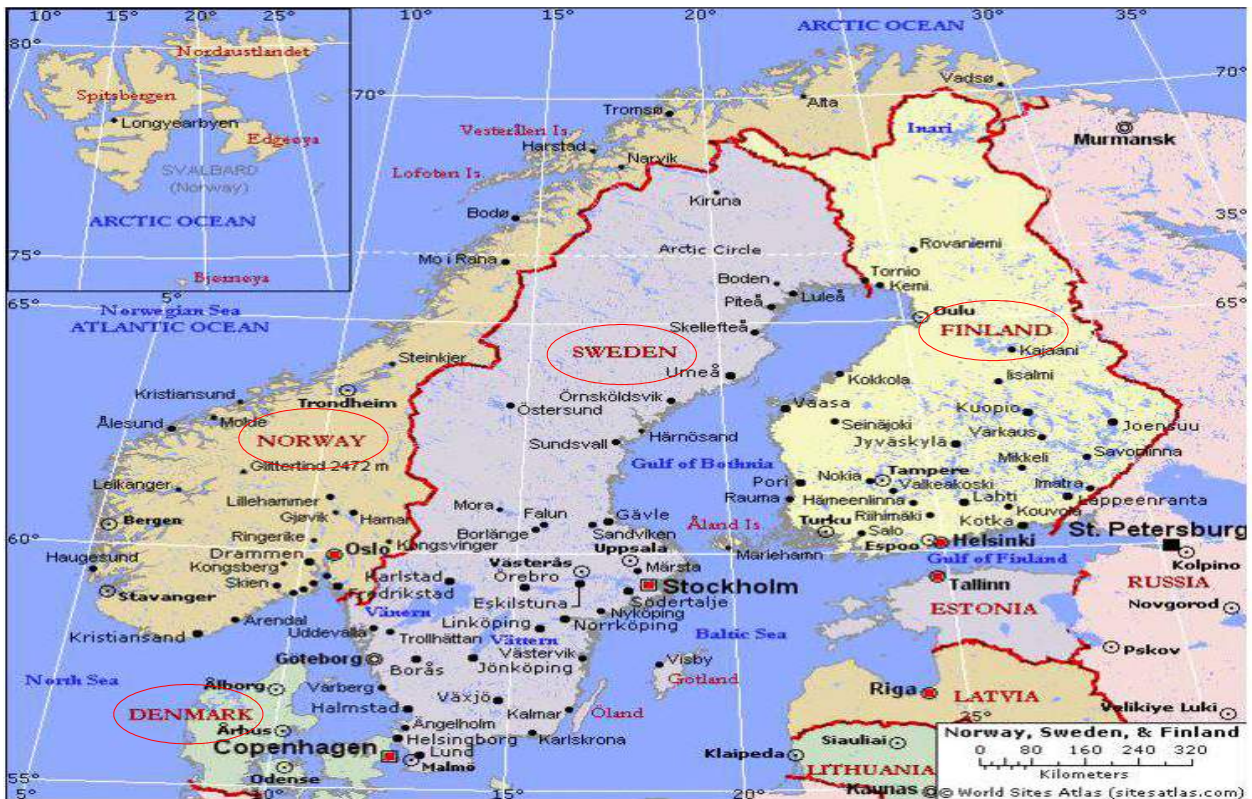
3. 세부 방문 일정

DATE	CITY	TRANS	TIME	ITINERARY	MEAL
제1일	광주 인천 모스크바 (러시아) 헬싱키 (핀란드)	고속 버스	07:00 12:50 16:15 18:20 20:05	광주미팅 인천 출발 (약 9시간 5분 소요) 모스크바 도착 후 연결편으로 모스크바 출발(약 2시간 55분 소요) 헬싱키 도착	중:기내식 석:기내식
제2일	헬싱키	전용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 헬싱키 쓰레기 소각장 방문 및 브리핑 ◆ 핀란드의 국민음악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한 시벨리우스 공원 관람 ◆ 암벽을 폭파하여 만든 암석교회 (템펠리 아우키온 교회) 방문 ◆ 헬싱키의 랜드마크 꼽히는 마켓 광장 (카우파토리) 관람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선내식
제3일	스톡홀름 (스웨덴)	전용 버스	전일	◆ 북유럽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시청사 관람 ◆ 스웨덴 황실의 전함 바사호가 전시되어있는 바사 박물관 관람	조:선내식 중:한식 석:중국식
제4일	헬싱보리 헬싱고르 코펜하겐 (덴마크)	전용 버스	전일	◆ 덴마크 의회 방문 ◆ 코펜하겐 복지시설 방문 및 브리핑 ◆ 신년 축하를 위해 축제를 벌이는 곳으로 유명한 시청사 광장 ◆ 현재 덴마크 왕실의 주거지 아미리엔보 궁전 조망 ◆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덴마크의 선원 추모 게피온 분수대 방문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선내식
제5일	오슬로 (노르웨이)	전용차량	전일	◆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던 시청사 방문 ◆ 모든 소장 자료 디지털화되어 전자책 형태로 된 국립도서관	:선내식 중:한식 석:호텔식
제6일	롬 게이랑에르 피얼란드 뵈이아	전용차량	전일	◆ 노르웨이 어린이집 방문 ◆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요르드로 손꼽히는 게이랑에르 관람 ◆ 북유럽 최대의 빙하산인 요스테달산을 관통하는 피얼란드 터널 관람 ◆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빙원을 자랑하는 요스테달 빙원의 한 자락인 뵈이아 빙하 관람 후 피얼란드 빙하 박물관 견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호텔식
제7일	오슬로 브리겐	전용차량	전일	◆ 오슬로 최대 농수산물 시장 방문 (서구 농산물 시장 벤치마킹) ◆ 15-17세기 한자동맹 시절 목조 건물이 남아 있는 거리 브리겐 방문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호텔식
제8일	게일로 오슬로 모스크바	SU2175 SU250	13:10 16:45 20:55	호텔 도시락 조식 후 오슬로 공항으로 이동 오슬로 출발 모스크바 도착 후 연결하여 모스크바 출발	조:도시락 중:기내식
제9일	인천 광주	고속 버스	11:10 17:00	인천도착 광주 도착	조:기내식

4. 명단 및 담당 업무 내용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의 장	황 현 택	○ 연수단장 - 오슬로 농수산물 시장
부 의 장	김 광 태	○ 헬싱키의 랜드마크 꼽히는 마켓 광장(카우파토리) 관람
기 획 총 무 위 원 장	백 종 한	○ 노벨평화상 시상식장
의 원	오 광 교	○ 헬싱키 쓰레기 소각장
의 원	장 재 성	○ 시청사 거리 및 국립고궁 박물관 (바사 박물관)
의 원	윤 정 민	○ 덴마크 코펜하겐 복지센터

5. 방문도시 위치도



II. 방문국 현황

1. 핀란드(Finland)

○ 일반현황

• 위치 : 북유럽 발트해연안	• 종족 : 핀란드인 93%, 스웨덴인 6%, 러시아인
• 수도 : 헬싱키	• 정치 : 공화제
• 1유로 = 1226.55원 (2015.05.22 13:59)	• 의회 형태 : 다당제&단원제
• 언어 : 스웨덴어, 핀란드어 인구 5,268,799명 (2014)	• 국가원수 : 대통령
• 면적: 338,145km ²	• 정부수반 : 총리
• 기후 : 온난성기후	• 나라꽃 : 은방울꽃
• 종교 : 핀란드루터교 83%, 그리스정교 1%, 그리스도교	• 경제지표 : GDP 2352억7600만 달러 (2015), GDP: 4만 2,733달러(2015)

○ 역사

늦어도 BC 7200년 이전에 인간이 거주한 흔적이 있으며, 2개의 뚜렷한 핀우골족의 석기시대 유물이 남아 있다. 기원 무렵에 이곳으로 발트 해의 핀족이 이주해 왔고, 12세기에 스웨덴 왕과 읍살라 주교의 '십자군'이 핀란드로 진격해 왔습니다. 1323년에 스웨덴은 핀란드 최초의 공동체인 타바스티아와 카렐리아를 합병하고, 1581년에 핀란드는 대공국이 되었다가 1634년에 스웨덴 왕국에 합병되었는데, 세계적 지배세력으로서의 스웨덴이 쇠퇴하자 핀란드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놓였다. 러시아는 핀란드에 대한 권리를 재 주장했고, 1721년에는 대북방전쟁의 종결로 핀란드 영토의 일부를 양도받았다. 1808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핀란드를 침범했고, 1809년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다. 그 이후로는 핀란드의 국가주의가 성장한 시기였다. 1905년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핀란드 독립의 토대가 마련되어 1917년 12월 6일에 독립을 선포했다. 1939년에 일부 영토를 합병하자는 소련의 요구를 핀란드가 거절하자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했고, 짧은 전쟁을 치른 후인 1940년에 핀란드인들은 휴전을 하자고 한 해였다. 당시 러시아-핀란드 전쟁(1939~40)이 시작되자 핀란드인들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해 들어갔으나 1944년에 평화가 정착되자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1944년에 체결된 화해 배상금 조항 때문에 핀란드는 막대한 경제적 고난을 겪었으나, 종전 후 소련과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강대국과의 비동맹 정책을 일관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 경제

1920년대~193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던 여타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핀란드는 불안한 국내 정정으로 뚜렷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에 기초한 전통적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939년~1940년간 및 1941년~1944년: 2차례에 걸친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대소전쟁배상금을 선박, 농기계, 제지기계 등 공업 제품으로 배상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 경제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시키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전쟁 배상 지불이 역설적으로 핀란드의 공업화에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시의 세계적인 자유무역제도도 핀란드의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당시 핀란드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하에 대내외 정세가 안정되고 이러한 배경 하에 소련 및 동유럽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구가하였다. 1980년에는 임산업 및 금속공업 등 주요 수출산업의 발전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1980년대는 유럽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3%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구가하는 등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경기가 과열되고, 해외시장이 위축되며, 또한 소련 해체에 따른 동서 간 중개무역 및 소련과의 구상무역체제(Barter System: 핀란드의 금속, 섬유, 의류 등 제조업 상품과 소련 원유·가스를 교환)가 붕괴되면서 핀란드의 경기 후퇴가 시작되었다. 1991년 핀란드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으며 실업률이 17%에 육박하였다. 1993년 말: 핀란드는 그간 시행했던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르카화 평가절하, 공공지출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통화정책 변경 등의 개혁정책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4% 내외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단, 1992년 경기침체 당시 13%~18%대로 상승한 실업률은 하락 추세이지만 2006년 2월에도 8.4%를 유지하는 등 실업문제는 핀란드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핀란드는 1993년에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으로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를 설정하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강력하고 성공적인 기술혁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별 정책에서 클러스터(cluster)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핀란드는 현재 주요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9개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전통 산업단지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지방정부 주도형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도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초일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위 국가, 혁신 기술의 본고장으로 발돋움하였다. 2007년 4월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가용 가능한 노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라고 밝히면서, 통상산업부, 노동부, 내무부 내 1개 부서(지역개발국)를 통합하여, 고용경제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부로 고용경제부가 출범하여, 혁신기술 및 관련 정책 개진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 촉진, 지역 균형발전 도모, 노동력 확대, 기업규제 완화 및 시장 기능의 활성화 유도, 에너지 자원 확보 등과 관련한 정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핀란드의 3대 주력산업은 첫째로는 풍부한 산림자원(약 19억㎡로 유럽 내 4위)을 기반으로 하는 제지·펄프업 등 임산업이고, 둘째로는 부존 지하자원(철, 구리·니켈, 코발트 등 금속광물)을 활용한 금속·기계산업이며, 셋째로는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복 이후 주력산업으로 부각한 전자·정보통신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는 인구 520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2004년 무역의존도: 60%), 목재와 소수 광물을 제외한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1995년 유럽연합 가입,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 (EMU, European Monetary Union) 가입, 2002년 유로(Euro)화 사용 등 유럽연합을 통한 서구 선진국가와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2. 스웨덴(Sweden)

○ 일반현황

• 위치 :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남부	• 기후 : 해양성기후
• 수도 : 스톡홀름	• 종교 : 복음루터교 87%, 로마가톨릭종족스웨덴인 95%, 핀란드인 3%
• 환율 : 134.34원 (2015.06.10 17:28)	• 정체 : 입헌군주제 (의회형태 : 단원제)
• 언어 : 스웨덴어	• 국가원수 : 국왕 (정부수반 : 총리)
• 인구 : 9,723,809명 (2014)	• 나라꽃 : 방울꽃
• 면적 : 450,295km ²	

○ 역사

BC 12000년경에 초기 수렵인들이 유럽으로부터 스웨덴으로 이주해왔다. BC 3500~500년경 수렵채집인들이 스웨덴 남부에 흩어져 살았고, BC 2500년경에는 농경 목축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다. BC 1500년경 스웨덴과 유럽대륙간 교역이 시작되었으나 BC 500년경 켈트이베리아인들의 영토 확장으로 중단되었다. 철기시대는 약 800년간(BC 400~AD 400) 지속되었으며 이 동안 남쪽으로 로마와의 교역이 늘어났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최초로 기술한 바에 의하면 스비오네스(스웨덴인)로 알려진 게르만족이 스웨덴 동중부에 살면서 점차적으로 스웨덴 남부(예탈란드)의 고트족을 정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이킹 시대의 스웨덴인들은 발트지역과 동부 러시아에 터전을 잡고 남쪽으로 드네프르 강과 볼가 강을 따라 비잔티움과 중동에 이르는 교역로를 장

악했다.

스웨덴은 10세기경 역사에 뚜렷하게 등장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데 크게 반발했으나, 11세기 올로프 시괴트코농이 스웨덴 왕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1164년에는 스웨덴인 출신의 대주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때 스웨덴은 아직 느슨한 연방체였고 군주제도는 경쟁관계에 있는 왕조들간의 싸움과 심하게는 군주와 봉건 영주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1397년에 포메른의 에리크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의 왕이 되어 1439년까지 스웨덴에서 통치했다. 15세기말과 16세기초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왕들은 3왕국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서로 겨루었다. 1523년 구스타프 1세 바사는 독립국가 스웨덴의 통치자로서 왕위에 올라 1720년까지 지속되었던 바사왕조의 계보를 확립했다(→ 색인 : 바사왕가). 이 때 종교개혁의 물결이 스웨덴에도 밀려들어 루터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다. 17세기에 스웨덴은 발트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바사 계보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인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독일 프로테스탄트교도들과 연대해 오스트리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쟁을 벌였다. 강대국 스웨덴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카를 12세 재위시인 1709년 러시아 침공에서 무참히 패배하면서부터였다. 대(大)북방전쟁(1700~21)에서 카를 12세의 죽음(1718)은 유럽 열강으로서의 스웨덴의 위상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반세기는 바사 절대왕정에서 의회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그러나 구스타프 3세 통치기간(1771~92)중에 절대왕정으로 복귀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영국의 동맹국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했으나, 구스타프 4세의 지도력 부족으로 1808년 러시아에게 핀란드를 내어주고 말았다. 1809년 구스타프 4세는 퇴위되었고 왕위 승계를 둘러싼 위기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 육군원수 장 바티스트 베르나도트가 이 왕국의 황태자로 임명되어(1810), 카를 요한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1818년에 카를 요한은 카를 14세로 왕위에 올라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카를 14세는 재위(1818~44)시에 보수주의 성향을 띠었으나, 그의 아들 오스카르 1세(1844~59 재위)와 손자 카를 15세(1859~72 재위)는 자유기업 및 교역, 의무교육, 리크스다그의 대표제 개혁 등 진보적인 개혁을 도입했다.

1905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왕권 동맹은 오스카르 2세의 통치기간중 해체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중 스웨덴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무역이 큰 타격을 입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었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사회민주당이 크게 성장하여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웨덴은 자국의 중립을 공포했으며, 전쟁중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전쟁 후 스웨덴은 UN에 가입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거부함으로써 중립정책을 고수했다. 또한 사회개혁을 실시해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 원조를 선도하는 복지국가로 변신했다. 사회민주당은 1975~82, 1991~94년의 두 기간 동안만 집권하지 못했을 뿐 전후

내내 정치를 지배해왔다. 1991년 7월 1일 유럽공동체(EC) 회원국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이 결정은 200년에 걸친 유럽 대륙과의 분리 정책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1992년 반 세기만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비사회주의연합 정부의 인기가 하락했고,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1994년 사회민주당이 권좌에 복귀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5년 1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 경제

스웨덴은 주로 서비스업·중공업·국제무역 등을 기초로 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국민총생산(GNP)이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1인당 GN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스웨덴 외스테르예틀란드 주 외데스회그에 있는 베테른 호수 동쪽 변의 농장지대이다.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미만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전체 노동인구의 4% 정도에 그친다. 토지면적의 7%만이 경작되며, 농장은 규모는 작으나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다. 정부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둬들여 농업을 보호하며, 농산물은 국내수요의 80%를 충당한다. 스웨덴 농장들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작물로는 밀·사탕무·보리·귀리·감자 등이 있다. 가축 사육(특히 돼지와 소) 및 우유 생산도 고도로 발달해 있다. 국토의 2/3가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1년 내내 관리가 이루어진다. 스웨덴은 주요 목재 수출국이기도 하다. 조립식 주택, 판자, 가구 등 다양한 나무 제품들이 생산된다. 철강생산이 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의 정부가 관리한다. 스웨덴 철강업은 서유럽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다. 구리도 다량 채굴된다. 스웨덴은 화석연료가 부족해 석유·천연 가스·석탄·농축핵 연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제조업이 발달했고 다양화되어 있어 GDP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1/5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공업이 지배적이며 자동차·비행기·기계·철강 제조가 주종을 이룬다. 경공업은 전자·통신 장비, 금속·플라스틱 가공, 유리제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약품·의료기기,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전기는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얻는다. 다양한 풍광과 매력적인 대외 이미지를 자원으로 한 관광업 역시 중요한 산업이다. 스웨덴은 고도로 발달된 철도망과 광범위한 국도 및 고속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적어도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국제항공 서비스는 스칸디나비아항공사(Scandinavian Airlines System/SAS)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항공은 리네플뤼그(Linjeflyg/LIN)가 맡는다. 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에 있는 공항들은 국제 및 국내 운항을 모두 담당한다. 수출은 GDP의 약 1/3을 차지한다. 펄프·목재·철강과 같은 제품들에서 자동차·통신장비 및 그밖의 완제품으로 수출의 비중이 높아갔다. 독일·영국·미국·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가 스웨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3. 덴마크(Denmark)

○ 일반현황

· 위치 : 유럽 유틸란드반도	· 종교 : 복음루터교 95%, 로마가톨릭&그리스도교 3%, 이슬람교
· 수도 : 코펜하겐	· 종족: 스칸디나비아인, 페로스인, 이뉴잇족
· 환율 : 168.51원 (2015.06.10 17:47)	· 정체 : 입헌군주제(의회형태:단원제)
· 언어 : 덴마크어	· 국가원수 : 국왕(정부수반:총리)
· 인구 : 5,569,077명 (2014)	· 나라꽃 : 붉은클로버
· 면적 : 43,094km ²	

○ 역사

현재의 덴마크 지역에 인류가 최초로 거주한 시기는 약 20만 년 전이며, 약 5만년 전경 빙하가 북쪽으로 이동, 광범위한 툰드라 지대가 형성되면서 순록을 사냥하는 유목민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구·신석기시대(BC 9500년-BC 1500년), 청동기시대(BC 1500년-BC 400년) 및 철기시대(BC 400년 이후)를 거친 후, AD 500년경에 농경을 주로 하는 앵글족 및 유틸족이 처음으로 집단부락을 형성하였다. 국가형성기는 6세기-10세기 사이에 바이킹이 유틸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원시 왕정국가를 형성하면서 스웨덴 남부, 영국 동부, 심지어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하는 위세를 떨쳤으며, 특히 9세기 경에는 영국 북부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826년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되어, 이외링 지역에서 일어난 왕가는 970년께 하랄(Harald) 왕 치하에서 덴마크를 완전히 기독교화하였고, 1014년경 그 아들인 스벤 왕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잉글랜드 왕을 겸하였다. 하랄 왕의 차남 크누드 1세(카누트 대왕)가 1016년에 잉글랜드 왕위에 올랐고 1018년에는 덴마크 왕을 겸하였으며, 1028년에는 노르웨이 왕으로 추대되어 '북해 제국(앵글로 스칸디나비아 대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크누드가 세상을 떠나자 북해 제국은 와해되고, 유틸란드 반도국 덴마크로 되돌아왔으며 얼마 후 크누트의 친척 스벤 2세가 덴마크 왕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브레멘 대주교가 덴마크 왕권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 12세기 초부터 덴마크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독립 교구가 정착한다. 한때 덴마크를 진동시키던 왕위 계승 분쟁을 가라앉히고 발데마르 대왕이 즉위하였다. 그의 오른팔인 로스킬 주교 압살론은 코펜하겐 시를 건설하여 오늘날 덴마크의 수도로 번성하는 초석을 만들었다. 한자 동맹과도 경쟁하고 발트해 연안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 경제

천연자원이 빈약한 데도 국민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생활을 즐긴다. 덴마크의 경제는 서비스업·제조업·금융업을 기초로 한 국영과 민영의 혼합 경제체제이다. 인구수보다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비슷하다. 국토

의 2/3 가량이 경작 가능한 토지이다. 집약농업을 하며, 대부분의 토지는 협동조합에 속하는 소농(小農)들이 차지하고 있다. 농민은 전체 노동력의 대략 1/16이다. 보리를 비롯해 밀·평지·사탕수수·감자 등이 주요작물이다. 목초지가 국토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으로는 돼지가 주종이고 그 다음으로는 육우와 젖소 순이다. 닭과 오리도 많이 기른다. 천연 낙엽수와 인공 침엽수·전나무가 울창한 삼림지역이 국토의 약 12%를 차지한다. 이 나라는 많은 섬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유난히 길다. 해안이 대부분 피오르드 형태이므로 천연항이 많아 수산업, 해운업, 그리고 관련산업이 발달했다. 총어획량에서 덴마크의 수산업(주로 해양수산업)은 보통 세계 15위 안에 든다. 광물자원 채굴은 GNP의 1% 가량을 차지하나 고용비율은 1% 미만이다. 하지만 원유·석유제품과 석탄 수입은 덴마크 총수입의 약 1/5에 달한다.

제조업은 잘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여 노동자 5명 중 거의 1명꼴로 이 부문에 종사한다. 정유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생산품으로는 시멘트, 돼지고기, 미가공·반(半)가공 강철제품, 가공식품, 화공약품, 종이 등이 있다. 전력은 거의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다. 매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도 중요한데, 관광객들은 대부분 코펜하겐과 그 부근에 있는 해안휴양지를 찾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한 공업화 계획으로 원자재와 에너지용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는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1970년 북해에서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에너지 수입비용을 조금 절감하게 되었다. 정부가 개발한 폭넓은 사회복지사업과 결부되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국가경제의 한 특징을 이룬다. 노동력의 1/4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이고 단체 활동의 조직과 참여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정부를 대신해 실업보험 사업을 관리하기도 한다. 세입은 주로 관세·국내물품세·소득세·재산세에서 발생한다. 세출은 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 국방에 쓰이며 나머지는 경제개발에 사용된다. 덴마크 국영철도회사가 전국 철도의 4/5 이상을 소유·운영한다.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도로와 고속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도로는 포장되어 있다. 약 420km에 이르는 내륙수로가 있다. 덴마크 국영철도회사가 운영하는 연락선들이 덴마크 여러 섬들과 유틀란트 반도를 연결하고 있으며 독일·스웨덴·노르웨이에도 취항한다. 여러 훌륭한 항구들이 15개의 주요 선박회사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준다. 코펜하겐 중심부에서 약 10km 동남쪽에 있는 카스트로프에 국제공항이 있다. 수출품은 주로 식품과 산 동물이나 기계류·수송장비·가구를 포함한 여러 공산품들도 수출한다. 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접한 독일·스웨덴·영국이다. 같은 나라들에서 기계류·수송장비, 기본적인 공산품, 원유·석유제품 등 주요한 수입품을 들여온다.

4. 노르웨이(Norway)

○ 일반현황

• 위치 : 스칸디나비아반도 서부	• 면적 : 323,802km ²
• 수도 : 오슬로	• 기후 : 해양성기후
• 환율 : 144.30원 (2015.06.10 17:47)	• 종교 : 복음루터교 85%종족켈트족, 게르만족
• 언어 : 노르웨이어	• 정치 : 입헌군주제(의회형태: 단원제)
• 인구 : 5,147,792명	• 국가원수 : 국왕(정부수반: 총리)

○ 역사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 알려진 가장 초기의 것은 해안을 따라 발견되는 석기 도구들로 BC 7000~6000년의 것들이다. BC 3000~2500년 사이에 새로운 이주자들이 동부에 정착했다. 기원후 첫 4세기 동안 노르웨이인들은 로마에 정복당한 골족들과 접촉했다. 서구에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던 시기(400~600)에 노르웨이에서는 웅장한 무기와 금으로 만든 물건을 함께 매장한 족장들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800~1050년은 바이킹 시대로, 당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약탈원정을 떠났다. 노르웨이인의 후손이 그린란드에 정착했고, 빈란드(뉴펀들랜드 해안) 원정에 나섰다. 900~1035년의 노르웨이 땅에는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어, 각 국가는 일단의 무사들을 이끄는 족장이 지배했다. 1015~30년에 올라프 2세 하알손이 전체 노르웨이 최초의 왕이 되었다. 올라프는 잉글랜드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빠져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많은 노르웨이인들을 개종시켰다. 1130~1240년에는 노르웨이 왕위를 둘러싸고 여러 세력 간에 내란이 벌어졌다. 내란 후기 동안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호콘 4세(1217~73)가 이 기간에 통치했다. 13세기 후반과 14세기 대부분을 통해 왕의 부와 권력은 증대했다. 1389년 포머른의 에리크가 노르웨이의 왕이 되었고 후에(1397)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왕이 되었다. 1442년 에리크 왕의 폐위 후 노르웨이는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하며 새로운 헌법을 갖기는 했으나, 스웨덴과 합병된 1814년까지 덴마크 왕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스웨덴 왕에 의한 지배는 190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해에 스웨덴의 오스카르 2세는 노르웨이 왕권을 양도했으며, 노르웨이인들은 투표로 공화국을 세우기보다는 독립된 군주국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덴마크의 카를 공이 호콘 7세로 선출되었다. 1905~14년 노르웨이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의료보험을 비롯해 1일 10시간 근무와 주당 48시간 근무 같은 많은 사회개혁을 법규화 했고, 1913년에는 여성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했다.

이 나라 해운업이 제1차 세계대전의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정책적으로는 전쟁 동안 중립을 지켰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 진로를 추구했다. 1927년에 이르러 노르웨이의 실업률은 20%에 달했고, 대공황기에는 33%까지 증가했다. 이같은 경제적 불황 아래서도 양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공업성장을 이루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중립을 선언했으나 1940년 독일군이 침공하여 노르웨이군을 패배시켰다. 노르웨이 왕과 정부는 영국

으로 피신했으며, 독일의 점령은 대전의 종결 때까지 계속되었다. 1945~65년까지는 노르웨이 노동당이 거의 계속 집권했다. 1930년대에 시작된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1965년 우익 연합세력이 노동당 정부를 축출한 뒤 1971년까지 집권했다. 그후 노동당은 1981년까지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그 기간 중 얼마 동안 노르웨이 최초의 여수상인 그로 하를렘 브룬틀란이 노동당을 이끌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당 행정부가 1981~86년 집권했지만, 1986년 브룬틀란이 이끄는 노동당이 다시 집권했다.

○ 경제

노르웨이는 1905년 독립됐다. 600여 년간 덴마크의 속국이였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전쟁에서 1830년 덴마크(나폴레옹 진영)가 패망하는데 스웨덴이 노르웨이 땅을 요구했다. 스웨덴의 속국으로 37년간(1867~1904)지냈으나 스웨덴이 아무 조건 없이 독립을 용인했다. 덴마크를 모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입헌군주국으로 왕신혈통 문제로 덴마크 왕자를 왕응로 추대하여 3대(현 국왕 74세로 1989년부터 재임)째 국왕이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에는 정서적으로 보이지 않는 반감이 있다.

바이킹시대 노르웨이 사람들은 체격이 왜소해 신장이 160cm에도 못 미쳤다. 척박한 토지로 생산이 부족하니 침대생활도 제대로 못 했다. 체구가 작으니 웅크리고 자던 습성으로 침대의 크기가 작다.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좁은 침대는 그 시절의 전통이 내려온 것이다. 궁핍하다 보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오후 3시경에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식생활이었다. 음식 문화는 자연 뒤쳐진다. 이렇다보니 안 먹는 것이 습관화돼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이 없었을 정도다. 먹고 살기 힘드니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많았는데 이민 1세에서 4세까지 78만 명에 달한다. 초원이 널려 있으나 대부분 목축을 건조재배에 국한돼 있고, 곡류는 전량을 수입한다. 어업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달했다. 북해는 세계 3대 어장이다. 청어, 고등어, 대구, 연어의 수확이 많다. 1970년 어획량에 비해 어부가 많아 숫자를 1만 명(우리나라의 7% 수준)으로 제한한다. 자원고갈에도 대비한 것이다. 남은 인원의 어부는 양식업으로 전환시켰다. 연어는 양식용이 오히려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해 비싸다. 양식어종의 유해물질 여부는 철저히 검사한다. 사료부터 다이옥신, 수은, 약품 잔량, 미생물, 기생충까지 확인한다. 수산물은 2013년보다 2014년 84% 증가했다고 한다. 세계 수출 증가폭(12%)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수출액 역시 62% 늘어난 10억크로네(약 1,420억)집계됐다.

노르웨이는 2분기(201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1분기 대비 1.2% 증가하였고, 높은 전기 생산량이 GDP 증가에 크게 기여한 반면, 원유 수출은 부진하였다. 2분기 고용 역시 1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사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0.8% 증가하여, 1분기 +0.9%에 이어 계속하여 증가세다. 반면 차량 구매를 위한 소비지출은 감소하여 2분기의 소비지출이 전분기의 소비지출 성장세보다 둔화된 요인

으로 작용함. 이는 1분기의 높은 자동차 구매율에 따른 상대적인 현상이다. 대체로 서비스업, 경공업, 중공업, 석유, 천연 가스 생산업 등에 기반을 둔 혼합경제가 발달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NP)은 인구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농업은 전체 GNP의 4%도 안되는 몫을 차지하는데, 노동력의 대략 7%가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전국토의 약 5%만을 경작할 수 있으며, 이 경작지는 골짜기·호수·협만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작물은 보리·감자·귀리·밀 등이며 주요가축으로는 양·소·돼지 등이 있다. 모피를 얻기 위해 푸른여우·은빛여우·밍크를 사육한다. 그리고 대부분 침엽수로 이루어진 삼림이 전국토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임업이 중요한 산업이다.

노르웨이 선박들은 청어를 비롯해 푸른대구·별빙어·대서양대구·참새우·새우 등을 낚아올리며, 이 생선들을 냉동시키거나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한다. 1977년에 경제구역이 설정되어 근해 200해리까지의 어장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경제구역에 대해 소련은 이의를 제기해왔다.

1975년 이후 노르웨이 소유의 북해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인해 주요 석유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스타토일(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을 통해 석유탐사와 생산에 참여하고 균형된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근해 유전의 개발을 제한해왔다. 세계 주요 알루미늄 생산국 중의 하나이며, 구리도 널리 채광된다. 1973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노르웨이는 유럽 경제공동체가 설정한 할당량 때문에 철 생산량이 감소했다. 공업은 GNP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며 유사한 비율의 노동력이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은 주로 철·목재·어류 등과 같은 국내 천연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풍부한 수력발전이 알루미늄 생산의 증대를 도왔다. 컴퓨터 관련 산업과 종이, 가구, 실리콘 합금, 전기, 기술제품제조 등이 주요산업이다. 전력은 대개 수력발전소에서 얻어진다. 노르웨이의 상선(商船)은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현대적인 것에 속한다. 그러나 1975년 이후 해운업의 불황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 선박들을 팔면서 조선업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19세기 후반부터 활성화되었다. 노동자와 경영인 사이의 의견조정으로 저소득 노동자에게 더 큰 폭의 임금상승을 허용함으로써 임금을 균일화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금은 매우 누진적이며 공공지출이 GNP의 약 1/4을 차지하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영국·독일·스웨덴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운송장비, 연료를 포함한 천연자원, 금속 등이며 수출품으로는 석유, 천연 가스, 알루미늄, 철, 강철 등이 있다.

Ⅲ. 주요기관 방문

1. 핀란드

- ① Vantaan energia 쓰레기 소각장 / 16

2. 스웨덴

- ① 개 보호소(공원 등) / 20

3. 덴마크

- ① 덴마크 의회 / 24
- ② 자전거 보관대 / 28
- ③ 코펜하겐 복지센터 / 30

4. 노르웨이

- ① 오슬로 최대 농산물 시장 / 34
- ② 청소차 / 34
- ③ 롬 어린이집 / 36

1. 핀란드(5.27. 20:00분 도착)

핀란드는 우리나라에서 자일리톨껌이 유명한데 그 자일리톨을 자작나무에서 추출한다고 한다. 구강 건강과 미네랄이 풍부한 자작나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뜻으로 일명 귀족나무라고도 부르는데 겨울에도 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이란다. 북위 45도 이상에서 자란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 투명지수 1위로 아주 깨끗한 나라다. 화강암에서 나온 석수는 식용으로 수출하며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한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호수도 엄청나고 섬도 1만 개가 있다. 주 생산 및 수출 품목은 임업에 관련되어 있고, 기계생산, 주류산업이 국가산업이다. 국립대는 2개가 있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이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으로 교육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 실업률은 7%이며, 공무원 정년을 68세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식당은 주류나 기타 음식물이 철저하게 통제된다고 한다.

(1) 헬싱키 Vantaan energia 쓰레기 소각장

(<http://www.vantaanenergia.fi>)

가. 방문일자

○ 2015. 5. 27.(09:30 ~ 11:30)

나. 주요 설명



숙소에서 9시에 출발하여 9시 30분에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헬싱키 소각장 Vantaan energia에 도착하였다. 화창한 날씨는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준다. 소각장은 작년 6월에 세워졌다. 2개 시 만다시와 헬싱키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공사로 지역난방, 전기, 폐기물 관련 서비스를 판매한다. 연료는 가정생활쓰레기이고, 산업은 아니다. 1년에 32만t 처리 능력이 있으며 가정과 학교, 부두폐기물을 가져온다. 1인당 하루 1kg로 그중 500g 혼합쓰레기가 나오고 매립지로 갈 것은 없다. 재활용이



소각장 담당자 현황 청취



쓰레기 재활용 사진



소각시설 견학 위해 이동



소각 처리 과정 견학



재활용하는 과정 시청



영상 시청 후 토론

아닌 무조건 혼합인데 그 중 20%는 못 태운다. 나무 50%, 플라스틱 20%이다. 소각장 관계자 분은 아주 자신 있게 “가장 큰 시설이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설이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

2011년 착공하여 2014년 준공된 건물로 올 6월이면 1년이다. 월~금요일까지 하루 150대, 트럭 1대 7,010t으로 10분정도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폐기물 저장소에서 3, 4일 후 1,000도 이상에서 소각하는데 태워진 후 2초 정도 쉼(휴지기)를 가진다고 한다. 산소 잉여는 굴뚝을 통해 배출된단다. 대기, 유해물질은 법적 규제보다 30%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연간 32만t 태울 경우 약 6,000t 분산물이 나오는데 자석을 이용하여 쇠붙이를 골라내면 약 5,000t 이상은 분리가 된다. 재는 화학물질 넣어 정화 후 배출하고, 스팀온도는 400도 정도로 지역난방과 가정 난방에 사용한다. 소각 시 연소되지 않은 것은 먼저 자석을 이용하여 쇠붙이를 분리하면 5,000t 이상 분리되는데 1,000t 이상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이고, 그 외 다른 쇠붙이이다. 재 6,000t 중 5,000t은 쇠붙이이다. 그 외 나머지는 소음방지벽, 주차장에 사용한다. 트럭은 100km 원거리에서도 온다.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파란차가 무게를 잰 후 들어와 하적하고 있었다. 마침 하얀 차가 보여서 진지하게 어떤 차냐고 물어봤더니 택배차라고 해서 다함께 웃었다. 3억 유로 중 50%는 가스정화시설에 사용하고, 지역난방은 10t 정도 끓이는 물이 들어 있다. 민원은 없고, 허가 때 주문사항이 있어 대책을 강구했다.

우리가 현장을 견학할 때 소각로 4번째가 소각 중이었다. 반타시는 60% 15만 가구 난방하며, 헬싱키는 40% 충당한다. 반타시는 전기료가 가장 낮다. 헬싱키는 러시아 가스관을 줄이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투자설비가 많아 장기계약 원하지 않고 서비스만 하고 시와 군에서 운영한다.

높이 70m 측량장비 되어 있고, 넘을 경우 섯다운 되는데 중간에 굴뚝이 있다. 굴뚝 높이는 충분히 높고, 풍향도 계산한다. 물리적 의학적 쓰레기 다른 데서 하고 일반쓰레기만 온다. 발전소를 짓게 된 계기는 짠 전력 때문이다. 폐기물 95% 이상 연료로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와서 보게 한다. Vantaan energia 담당자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투자가 문제다. 우리는 31년(1984년)전부터 실행했다.”고 말했다.

다. 질의·답변

- 본인이 소각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냄새, 굴뚝높이가 연소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 많은 질문을 했다. 굴뚝높이가 연소에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 중 다이옥신 발생이 0.2Ng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소각장 상태는 어떤 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최근에 지어져 기준에 맞게 지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 민원발생과 오염물 측정치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가에 대해 질의하자 소각장 증축 전에 단체, 유치원, 주민과 100회 가까이 미팅을 하여서 민

원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각장 안에만 측정치가 있다고 하였다. 사람이 불평하는 냄새에 신경 써서 냄새 시설 자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해마다 여름에 체크할 예정이며, 필터 통해 갈 수 있게 정화를 한다.

- 근무 직원에 대해 질문했다. 45명 발전소, 25명 지역난방 일을 하는데 2교대 오전, 오후반 근무를 한다.

라. 느낀 점

2시간 남짓 소각장을 둘러보고 담당자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민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음 속 깊이 감동이 밀려왔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소각장은 지은 지 20여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헬싱키 소각장을 둘러보고, 우리도 짓기 전에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민원인들과 많은 간담회를 했더라면 훨씬 좋은 시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 문화탐방

가. 시벨리우스 공원



소각장을 뒤로 하고 핀란드가 낳은 전설적인 육상선수 파보 누르미 동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핀란드의 민족적 음악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여 만든 공원 헬싱키 시벨리우스 공원을 둘러봤다. 헬싱키 시벨리우스 공원으로 가면서 창 밖에 비치는 시민들 모습은 참 평화로웠고 여유로워 보였다. 특히 시내 한복판에 도로 한 쪽으로 넓은 잔디밭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삼삼오오 둘러 앉아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네와 전혀 다른 것이어서 헬싱키 시민들이 부러웠다.

시벨리우스 공원 한쪽으로는 발트해가 보이고 한쪽으로 푸른 녹지로 되어 있어 산책

하며 거닐기가 딱 좋을 듯하다. 굵은 파이프로 만든 구름모양의 조형물에서는 금방이라도 웅장한 핀란디아가 울려 퍼질 듯 했다. 시벨리우스의 얼굴 없는 동상은 귀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청각적이기 보다는 핀란드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인 곳으로 표현하였다 하여 귀가 없이 동상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시벨리우스 공원은 상업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냥 쉼터 형태,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핀란드는 국민의 80%가 루터교라고 한다. 헬싱키 루터교회의 총본산 원로원 광장에서 조금 더 부두 쪽으로 나오면 마켓광장이 나온다. 때마침 벼룩시장이 열려 기웃거렸는데 추운 나라답게 보온용 옷이랑 소품들이 눈에 띄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별장문화가 많이 있어 많은 숫자의 집들이 별장이고, 많은 여가 시간을 별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캠핑문화 또한 발달되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많은 캠핑촌을 볼 수 있었다. 핀란드는 1순위가 꿈나무들, 2순위는 노인과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아빠로 차비가 무료라고 한다. 그리고 3순위가 개라고 한다. 그런 만큼 다니는 동안 개를 데리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16시경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2. 스웨덴(5.28. 06:30분 도착)

다음날 아침 5월 28일 6시에 하선하여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하였다. 스웨덴 대학 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엄청 크다. 호수가 10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노벨상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철학상을 주는 곳 중 한 곳 주변을 둘러보고, 시의회 광장도 갔는데 시의원은 101명으로 보통 투잡하며, 격주로 6~10까지 근무하며 정규직은 6명이 있다. 보수는 택시비만 준다.

스웨덴은 6월 13일 왕자가 속옷모델과 결혼한다고 준비 중이었다.

(1) 개 보호소

점심 식사 후 식당 뒤 공원을 산책하였다. 공원에서 조금 들어가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어 그쪽으로 우리 일행은 가 보았다.

굵은 철망으로 100평 남짓한 평수에 개들과 사람 몇 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산책하거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때 개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 바닥은 모래가 깔려있고, 개 도구함도 입구에 놔두고 삼 등을 마련해 놓고 분비물을 치울 수 있게 해 놓았다. 우리나라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국에 돌아가면 조례를 한 번 제정해 볼 계획을 세웠다.



알림 표지판



애완견 보호소 입구



안내판



분비물함(함 옆에 삽이 있음)



애완견 보호소 밖



애완견 보호소 안에 있는 모습

▣ 문화탐방

가. 바사 박물관 - Vasa Museum



구스타프 2세 시대인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10일 처녀항해 때 스톡홀름항에

서 침몰한 스웨덴 왕실의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곳이다. 침몰된 이후 1956년에 해양 고고학자인 안데스 프란첸(Anders Franzen)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 후 333년만인 1961년에 인양되었다. 1962년 임시 박물관이 문을 열어 이곳에서 1979년까지 보호액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1988년 바사호는 반 정도 완성된 새로운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1990년 바사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건조 당시 스웨덴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화 전함으로 침몰한 이유는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포를 이 배에 싣고자 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의 건조기술로는 경험이 없었던 큰 선박을 건조해야 했고 이에 있어서 바사는 상부하중이 너무 커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하고 돌풍에 침몰하고 만 것이다. 총길이 69m, 최대폭 약 11.7m, 높이 52.2m, 배수량 약 1,210t, 적재 대포 64문, 탑승 가능인원은 450명(300명의 군인)이다. 바사호의 인양과 함께 당시의 목조품과 배안의 조각상등과 더불어, 당시 선원들의 유골과 유품들이 함께 발견되어 17세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박물관은 총 7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바사호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으로 수도 스톡홀름(스톡~통나무 홀름~섬)그만큼 통나무와 섬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것이 삐삐, 노벨, 입헌군주제가 생각나네요.

제가 방문한 날은 아주 화창하고 매우 좋은 날씨였구요. 가이드하신 분이 여행하신 분들 북 많이 받았다고 말씀할 정도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북유럽은 춥고 변덕스러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시청을 방문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도시를 보니 깨끗하고 상가의 간판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소음 분진을 예방하고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규정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까 합니다.

스웨덴은 주로 섬을 연결한 도시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어린이를 우대하여 방송국 예산중에 약 15% 정도를 어린이프로그램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스톡홀름 시청이었는데 원래 그곳은 물레 방아간 자리였다고 합니다. 불이 나서 그대로 흙물스럽게 있는 것을 정리하여 현재 시청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시청 앞에는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을 축소해 놓았다고 하는데 제가 베르사유 정원을 본 사람으로서는 시청 앞에 있는 정원은 일부 조각상 4개 정도와 분수대가 있었으며 조금은 왜소하였습니다.

스톡홀름시청 옆에 시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옛날에는100명의 시의원이 있었으나 서로 절반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결론을 못 내고 하여 현재는 1명을 증원하여 101명의 시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내 과제가 바사박물관이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박물관 위치는 잔디가 있고, 호수가 있는 자연공원에 위치해 있었으며, 입장권 받고 안으로 들어가니 바사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사호는 구스타프2세 때에 건조하여 1628년 8월 10일 처음 향해 때 스톡홀름항에서 침몰한 스웨덴 왕실의 전함호가 군도출구에서 출항하여 돛을 올리고 부두로부터 떠나 향해하던 중 갑작스런 동풍에 휘말린 바사호가 전복되어 수심 25m에 침몰되었다고 하는데 바사호의 총길이가 69m 최대폭이 약 11.7m, 높이가 52.2m 탑승 가능 인원은 4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바사호는 정교하고 고풍스럽고 화려하면서도 구스타프국왕의 권위와 스웨덴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 침몰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포를 실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다는 설이 있고, 어떤 분은 배 밑에 돌을 쌓아 무게중심을 잡는데 상부하중의 균형을 잡지 못해 침몰했다는 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도자기 공부를 해 왔는데 박물관에서 배 침몰에서 나온 중국도자기를 볼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년대는 명말 아니면 청초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수입해 온 중국도자기가 서양인에게는 신선하였으며, 그 당시 아름다운 그릇은 왕족이 많이 사용할 정도로 귀한 도자기였습니다. 유골들을 보면서도 계급사회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런 아픔을 통해 한층 성숙하고 발전하는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8시 30분 휴게소에서 쉬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우리가 탈 배가 떠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배가 10분 간격으로 온다하여 안심하였습니다. 덴마크까지 15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여서 ‘왜 다리는 놓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위해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웨덴 남서쪽 항구에서 배가 커서 차를 탄 채로 배를 타고 레고로 유명한 덴마크로 향했습니다.

3. 덴마크(5.29. 10:30분 도착)

덴마크 날씨도 아주 맑고 쾌청했다. 손 내밀면 그대로 잡힐 것 같은 머리 위의 구름이 좋다. 한반도의 1.5배의 면적에 인구는 570만 명이라니……. 밤 10시가 넘어도 흰하고 새벽 3시정도면 날이 흰하게 샌다. 제일 부러운 것은 넓은 땅, 적은 인구, 최고의 복지국가인 것이었다. 교육도 무료, 노후도 완벽하게 해준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전봇대나 다리에 사진이 걸려있는 게 눈에 띄었다.

(1) 덴마크 의회

가) 방문일자

○ 2015. 5. 29.(11:00 ~ 12:00)

나) 주요설명

덴마크 의회 정문, 의원 출입구가 시내 일반 도로와 연이어 있고, 덴마크 의회 사무처는 우리나라와 달리 회의장과 사무처 건물이 완전 분리되어 있었다.



지금 사용되는 국회의사당은 한때 왕궁이었던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이라고 한다. 그 앞 광장에서 있는 프레데릭 7세 기마상이 있는데 그는 1848년부터 1863년 11월 15일 죽을 때까지 덴마크의 왕 재위 중 덴마크 의회를 만드는 헌법을 승인하여 입헌군주제를 도출하였다. 그의 모토는 ‘민중의 사랑은 나의 힘’……. 따라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서 있는 이유가 설명되었다. 의사당 출입구 위에는 “네 가지 아픔(고통)”이라는 조각 작품이 붙여져 있는데 귀, 머리, 배, 이가 아픈 사람이다. 의원들은 이런 민중의 고통을 함께하란 뜻인가 보다. 인상적인 것은 입구 양쪽에 세워진 자전거, 국회의원들이 타고 출퇴근하는 자전거란다. 우리네 국회의원들 자가용, 보좌관에 대조적인 모습이다. 잘 보면 비싼 자전거도 없다. 비싼 자전거를 선호하는 우리 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덴마크 의회 또는 폴케팅(덴마크어: Folketing/Folketinget)은 덴마크의 단원제 의회이다. 의원 정수는 179명으로, 덴마크 본토에서 175명,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서 각 2명을 선출한다. 1953년까지 폴케팅은 상원이었던 란스팅(덴마크어: Landsting/Landstinget)과 더불어 제국의회 양원 중 하나였다. 이후 제국의회는 없어지고 폴케팅이 입법기관이 되었다. 의회는 코펜하겐에 있는 크리스티안스보르 성에서

회의를 연다. 플케팅의 입법기능은 덴마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총리는 특별한 근거 없이도 언제든지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여왕은 재선거 요청을 항상 수락해야 한다. 정부가 주요 안건에 대해 의회 과반수 지지획득에 실패하면, 총리는 내각에서 물러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에서 유효표 2%을 얻어 봉쇄조항을 넘거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정당은 원내정당이 된다. 덴마크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이 임명한다. 하지만 여왕은 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는 총리가 되기 위해 의회 과반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에 반대하는 의원수가 정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유로 덴마크에서 소수 정부가 흔하게 탄생한다.

○ 역사

덴마크 의회의 역사는 1849년 헌법에서 시작된다.[1] 덴마크 제헌 헌법은 18세기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급진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보통선거권과 의회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 전국민개정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새 국왕의 지원을 받는 대지주와 공위 공직자들의 반동세력이 나타났다. 이들 외에 프로이센을 비롯한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외국세력도 반동을 부추겼다. 1864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패하면서 헌법 수정이 이루어진다. 1866년 대지주와 자산가가 항상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상원(Landsting)을 도입한다. 국왕이 자신의 주변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의회 자문 없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 다수에 의해 뽑힌 자유주의적 하원은 영향력을 잃었다. 1900년 이후 자유당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내부 균열과 보수파가 다수인 상원과의 갈등으로 입법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1915년에 다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상원의 권한제한과 여성 투표권 확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전간기 동안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사민당이 자유당을 대신해 원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 2차 대전 종전으로 독일 점령이 끝난 후에도 60년대까지 사민당 우위는 이어진다. 사민당이 주도하던 1953년 자유주의 헌법에 대한 반동의 흔적이었던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로 환원한다. 60년대에서 1982년까지 사민당과 보수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고, 1982년에서 1993년까지는 보수 연정이, 2001년까지 사민당이 연정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집권했다. 2001년부터는 자유당과 보수당 연합이 집권하고 있다.

○ 조직

- 의장

의장은 의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다. 의장은 부의장 4인과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단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공식기구이다.

- 상임위원회

덴마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25개가 있다. 상임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는 17명의 상임위원과 약간의 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은 정위원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참석해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상임위 보고서에 발언이 수록되지 않는다. 국제 관계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다룬다.

- 교섭단체

덴마크 정당은 규율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임기가 시작되면 각 정당의 의원단(교섭단체)은 대표와 간사, 총무 등을 선출한다. 대표는 교섭단체의 활동을 조정, 지도하며, 간사는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 정치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총무는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교섭단체 비서진을 이끈다. 일반적으로 원내교섭단체는 중앙당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에 따라 중앙당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영향력은 상이하다. 급진당같은 경우 당대표는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의원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회인민당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표단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의원단의 자율성이 약한 경우도 있다.

- 옴부즈만

덴마크의회는 1953년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옴부즈만은 법률가 중에서 의회가 선출하며, 의원은 선출될 수 없다.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에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임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결정의 합법성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옴부즈만의 권고는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해당부서는 의회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고를 수용하는 편이다. 2006년의 경우 3951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중 78.6%는 기각되었다. 나머지 25.7%는 문제 지적이나 권고조치를 내렸다.

- 의회 사무처

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입법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부견제, 건설적 정치 논의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처가 직원은 440명이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의장비서실과 총무국, 입법서비스실, 상임위 비서실, 유럽연합 업무 비서실 등이 있다.

- 의정활동 지원

의원에게 공무원 월급 38단계에 해당하는 세비와 주거비용이 지급된다. 2008년 4월 현재 세비는 571,641크론, 즉 76,715유로 정도였다. 주거비용의 경우 연간 53,647 크론 (7,201 유로)이 지급되고, 그린란드나 페로제도 출신의 의원 경우 조금 더 지급된

다. 의정활동을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추가 거주지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비용보전액은 연금과 수도세, 가스료, 전기료 등의 보용보전액 63,271크론(8,491유로)를 포함해 최대 88,580 크론(11,888유로)까지 지원이 된다. 코펜하겐 추가거주 비용을 보전 받지 않는 경우 코펜하겐 숙박비를 보전해준다. 정당의 원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그룹별로 의정활동비용이 지급된다. 정당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기본할당"과 "의석비례할당"으로 구분된다. 4석이상을 가진 정당에게는 기본할당으로 월 263,461크론(35,360유로)가 지급된다. 4석 미만의 정당은 기본할당에 1/4에 의석수를 곱한만큼 기본할당을 받게된다. "의석비례할당"으로 의석수당 월 41,249 크론(5,537유로)씩 지급된다. 10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5,537유로*10석에 기본할당 35,360유로 더해 월 90,750유로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공무원 월급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 선거

덴마크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덴마크에 주 거주지가 있는 덴마크인에게 주어진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동일하다. 의원 선출 방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의원 정수는 179명으로 이중 135명은 10개의 대선거구에서 선출하고, 40명은 정당투표에 대한 비례성 보완을 위한 추가의석으로 선출한다. 나머지 4석은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서 각각 2인씩 선출한다. 선거구별로 의석 배정 5년마다 (2010. 2015.2020...) 인구와 유권자수, 인구밀도(즉 면적)를 고려해서 배정한다. 지역구별 의석수는 2007년 선거의 경우 10에서 21석이였다. 유권자는 정당명부에 투표하거나, 개별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먼저 선거구별로 정당득표에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정된다. 이 때 군소 정당에 비해 주요 정당에 유리한 동트 방식(d'Hondts method)이 사용된다. 전국적 정당 득표와 지역구 배정 의석수의 불비례성 보완하기 위해 40석을 추가 배정한다. 이때 유효표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추가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체 175석을 헤어-니마이어 방식 (또는 최대 잔여방식)으로 정당별로 배정하고,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한 만큼의 의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정당별로 추가 배정된 의석은 수정 상트라귀 방식으로 3개의 광역지역으로 배분한 후, 다시 지역구로 배정한다. 지역구에서 추가의석을 배정받은 정당은 지역구 낙선자 중 최대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2) 자전거 보관대

세계 제1의 가장 안전한 자전거 길을 가진 나라 덴마크답게 시청사 광장 뿐 아니라 요소요소에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북유럽 나라는 전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덴마크를 낙농국가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산업디자인, 기술디자인, 바이오, 의약 산업이 발달한 산업국가라는 사실을 알았다. 돼지고기가 아주 맛있다고 가이드가 꼭 먹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는 인건비가 시급 3만 원이라고 합니다. 땅이 척박한 덴마크다.

세계 최초 놀이공원인 티볼리놀이공원을 지나쳐 코펜하겐 양로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의무교육 기간이 10년이고, 모든 복지정책이 이상적이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장애인은 태어나서부터 돈을 주고, 간병인은 평생 나라에서 지원해 주며, 성인이 되어 독립해도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복지센터를 가는 도중 교도소 건물을 봤는데 복지를 중요 시 하는 나라라 범죄자들에게도 최대한의 인권을 누리게 한단다. 안에 마트도 있어 개인 돈으로 쇼핑도 할 수 있고, TV시청도 가능하고, 모범수는 외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3) 코펜하겐 복지센터

가) 방문일자

○ 2015. 5. 29.(13:30 ~ 15:30)

나) 주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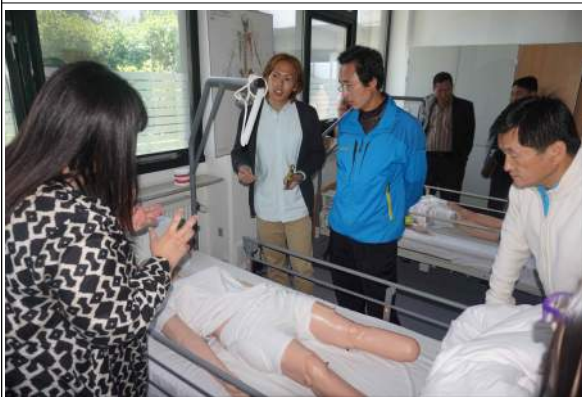
13시 30분 복지센터인 코펜하겐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시설 현황 설명



복지센터에 기거 중인 분들



마네킹으로 환자 다루는 법 실습



복지센터 입구



기념품 전달



천장 철막대기 모습

월슨 센터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센터장 설명에 의하면 주거까지 제공, 전담 요양사 붙는다. 152명이 살고 있고, 180명 정도 각자 집에 살면서 320명 정도가 복지센터에 와서 일과시간만 시설을 이용한다고 한다. 시설에는 식당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지만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받아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총 직원 수는 140명, 보조는 60명 정도 고용되어 있으며 24시간 상주한다.

가족방문은 시간 제약이 없고, 노인 중 14개국 나라에서 와 있으며, 직원도 24개 나라 사람을 채용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단다. 모든 사람들이 덴마크 분은 아니고, 영주권, 비자가 있으면 된다. 연금(보통 300만 원 정도)을 다 받고, 연금은 지방정부에서 송금해 준다. 연금으로 여기 비용도 쓰고, 60% 정도 치매라고 한다. 문화 활동을 중시하여 작은 그룹, 큰 그룹으로 해서 밖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온다.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시민단체에서 공부하는지 체크한다.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 분은 전쟁 참전해서 군병원에 계시다 병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가 없지만 받아줬다. 파키스탄분은 국적이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자녀들이 이용료를 부담한다. 주위 분들이 와서 여가활동도 하며, 여름에는 매주 수요일 바비큐티를 한다. 매일 80명 정도 식사하고 담소 나누는 곳도 관람했다.

외부 사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장소도 있었고, 미용실, 마사지도 받을 수 있었다. 시설을 돌아보는데 한 환자 분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담배연기가 자욱한데도 자제시키지 않는 것 같아 신기했다. 방마다 기거하는 분들이 몸이 불편해 거동을 못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게 천장에 기구를 연결할 수 있는 철 막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게 기거하는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시설을 둘러보는데 식당에서 주말 축제 준비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주민들을 보았다. 요리 등은 남자들만 받는 반도 있다고 한다. 남자 분들은 사별한 분들이 많다고 한다. 복도를 지나는데 냄새 제거를 위해서인지 향초를 많이 피워놓고 있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중 게이트볼이 인기가 좋고, Wii 운동과 요리 만들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시설을 돌아보고 질의·답변을 가졌다.

대부분 혼자 죽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서 혼자 임종하는 분도 많다고 한다. 요양사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각 지역별 영양원 친목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차량 3대가 있었다. 비용은 한 달 6,500크로나로 한화 110만 원 정도 된다. 거의 정부운영이지만 개인 펀드 운영하고, 정부에서 6,400크로네(105억 가량) 지원하고, 2,400크로네는 민간기업지원이다.

코펜하겐 영양원은 42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가 제일 크다. 식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짠 후 영양사가 참조하고 영양 균형에 맞게 짠다. 그리고 개인별 식단을 짠다. 단속은 4개 기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요양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꼽았다.

시설을 돌아보는 중에 노인 분들이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준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 분들이 치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노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덴마크란 나라에 대해 무한한 부러움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다. 친절하게 대해준 센터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복지센터 방문을 마치고, 신년축하를 위해 축제를 벌이는 곳으로 유명한 시청사 광장을 둘러보고 항구로 향했다.

덴마크인은 7~9시 사이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로 향하는 시간 3,4시경에는 사람들로 도로가 붐볐다. 덴마크인은 오직 일하는 시간에는 일만 한다고 한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 문화소개

가. 시청사

매년 신년 축하를 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도 벌이기도 한단다. 시청사 주위가 지하철 공사 중이라 사진을 잘 찍지 못했습니다. 시청사의 중앙에는 코펜하겐의 창시자 압살론 주교의 금장상이 있고, 내부에는 엔스올젠이 설계한 천체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시

청사의 지붕 위로 오르면 106m나 되는 시계탑이 있고, 이곳에서는 코펜하겐 시내를 조망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시청 광장은 코펜하겐 최대 변화가로써 시청사 주변 건물들이 모두 400-5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로 시내를 이동 중 1848년 세계 최초이며 세계 제1의 놀이공원 티볼리 공원을 밖에서 볼 수 있었는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도 이 공원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나. 뉘하운 운하(뉘하운=새로운 항구)

북유럽 여행, 덴마크 코펜하겐! 하면 떠오르는 항구다. 약 340년 된 인공항구라고 하는데 뉘하운을 따라 레스토랑과 노천카페에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햇살이 좋은 날에는 노천에 나와 맥주와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가 차 안에서 내다본 뉘하운에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뉘하운 항구 근처에는 유럽 전체에 명성을 떨친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1835년 ‘세계 어린이를 위한 동화’ 를 써서 안데르센의 거리로 불리는 곳이 바로 뉘하운이다.

다. 아말리엔보그 궁전

현재 덴마크 왕실의 주거지이며, 8각형의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4채의 로코코풍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아말리엔보 궁전은 1794년 이래 덴마크 왕실의 주거지로 현재 마르그레테 2세 여왕과 그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한다.

왕궁을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집무실 등 생활공간이 지하에 있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게피온 분수

유명한 맥주회사 회장 칼스버그의 후원으로 세계 1차 대전 당시 사망한 덴마크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말리엔보 궁전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게피온의 분수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 황소 4마리를 몰고 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분수는 1908년에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덴마크의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4. 노르웨이(5.30. 10:00분 도착)

코펜하겐 복지시설 방문 후 항구로 이동하여 seaway 탑승 후 14시간 이후 노르웨이 오슬로에 오전 9시 40분에 도착하였을 때 비가 오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북쪽으로 가는 길’ 이란 뜻이다. 노르웨이에 한국인은 잠깐 다녀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6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유전발견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1인당 GNP 9만 달러는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 액수다. 노르웨이는 동물, 밍크, 물개가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물개는 한 마리 하루 먹는 양이 1kg이라 어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잡아내고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밤 문화가 없고, 오후 6시에 거리가 굉장히 쓸쓸했다.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 주류는 비싸다. 담배 1갑이 10유로는 넘는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은 것은 저렴하게 판매한다. 의료는 전부 무료이고, 자기 부담금이 1년에 45만 원으로 이 돈만 내면 모든 게 무료다.

(1) 오슬로 최대농산물 시장

오슬로 최대농산물 시장도 견학하였다. 큰 생선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메기란다. 작은 메기만 보다 크기가 커서 놀랐다.



많은 비와 우산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은 급격하게 내려갔다.

(2) 청소차

식사 하러 가는 중에 쓰레기 청소차를 봤다.

유심히 보았는데 기사 1명이 림프트가 설치된 차로 혼자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다. 우리의 현실하고 다른 모습은 우리의 눈길을 끌었고, 우리 구도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러 갔다.



(3) 롬어린이집

계속 비가 그쳤다 왔다 계속 하는 가운데 롬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보통 학교 근처에 있는데 간판이 없는 게 특징이다.



노르웨이는 OECD내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여성 고용률이 82%나 되고 출산율도 1.9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노르웨이에서는 겨울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 밖에서 낮잠 재우는데 춥지 않도록 숨 쉴 구멍만 내놓고 꿩꿩 싸매서 유모차에 눕히고 재운단다. 유치원을 보내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숙면과 건강에 좋단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밤에도 침실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잔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 재울 거면 창을 열어두고 신선한 공기를 맡게 해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이들이 밖에서 놀게 하는데 3세 이하는 영하 10도, 4세 이상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린이집 실내로 들어가서 논다한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엄마가 되기 좋은 나라'로 뽑혔다고 한다. 세계 165개국의 양육환경을 바탕으로 선정된 거라고 한다. 2위 아이슬란드, 3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임신 기간 각종 검진과 출산 비용이 모두 무료이고, 육아휴직은 임금 100% 47주(약

11개월) 쓸 것인지, 임금 80% 57주(약 1년 2개월)쓸 것인지 선택하고, 47주(57주) 중 아빠가 쓸 수 있는 휴직기간이 12주(약 3개월)란다. 이 기간은 아빠한테 할당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 쓰면 엄마가 대신 쓸 수가 없고, 육아휴직은 입양했을 경우도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들이 0세부터 18세까지 양육비가 지원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중에서도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부 소속이고 만 3세부터 수입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일반은 한달에 50만 원, 일주일에 3,4번은 30만 원 낸다. 공립과 사립 차이는 없고, 오히려 공립에 인재교사가 많다고 한다. 초등학생은 4학년까지 방과 전, 후로 봐주는데 35만 원이라고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그렇듯이 노르웨йд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는 0원이다. 이민자 가정,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18세 이하라면 1명 당 907NOK(약 18만 원씩) 명수에 제한 없다고 한다. 싱글맘의 경우 1명 년 약 800만 원, 2명 년 1천만 원, 3명 이상 년 1,200만 원을 아이가 4학년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참고로 평균 임금에 비해 6배 이상 벌고 있는 경우 혜택은 없다고 한다. 너무 이상적인 복지혜택이라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졌다.

북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는 동안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차량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캠핑촌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전국 각지에 876개가 있고, 상수도 시설 다 되어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 국민들 정년에 대해 물어보았다.

보통 67세가 정상이고, 경찰과 군인은 57세부터, 항공기조종사 55세, 발레리나 40세, 공기업은 62세부터 20만 크로네 받을 수 있지만 67은 30만 크로네를 받는다고 한다. 75세 정년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혔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봉급쟁이는 12등급이고, 비즈니스는 6등급이지만 융통성이 있다. 봉급쟁이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 40년 근무하면 최고 연금 4만 크로네이다. 철도청 40년 이상 근무한 분이 우리 한화로 600~700만 원 받는다. 기본연금은 6,000크로네 정도로 1인당 100~150만 원이다. 부부가 같이 살면 적다. 추가 연금은 일한 만큼에 따라 다르다. 비즈니스 3만 크로네(400만 원), 배우자 사망의 경우(남편 사망의 경우) 수당이 높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무직일 경우 배우자가 추가연금의 70% 받는다. 재혼 시 연금수혜 대상이 안 된다. 단, 자녀 있는 경우 15년 이상 살아야 수혜대상 되고, 애 없으면 25년 이상 살아야 된다. 부모 사망 시 미성년자도 연금 받을 수 있다. 얼마씩 연금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책임금액을 낸다. 이혼율은 30%다. 동거제도가 있어 신고하면 사망 시 80% 받는다. 결혼식은 간소하며 초대받은 사람만 간다.

1997년부터 여자도 18세 이상 1년 군대 간다. 차에 넣는 기름은 옥탄가 95% 이상을 사용한다. 목사가 국가 공무원, 교회관리자(사무직, 성가대) 시공무원이며, 의사는 국가공무원, 간호사는 병원종사자 공무원이다. 대학교수는 국가 공무원이다.

초등 7년,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이다. 공무원은 이력서 내고 된다. 시골 전기공, 배관공은 공무원으로 지자체에 요청하면 보내준다. 시골은 70%가 공무원이고, 오슬로, 베르겐의 경우 38%가 공무원이다. 술은 국가에서 전매하며, 호텔 등은 경쟁을 제한한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민 오기 편한 나라라고 한다.

지붕 위에 흙을 덮고 풀이 있는 집들이 많았는데 흙 밑에 방수역할을 하는 자작나무 껍질을 깐단다. 바이킹시대부터 흙을 덮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1969년 유전을 발견하였다. 수력발전으로 가정, 모든 전기로 사용한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이 앞서 있고, 차량 생산이 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은 세금 부과율이 높다. 국가예산에서 도로, 포장, 확장하는 관계로 50% 정도 예산이 쓰인다. 기아 스포티즈 핸들 스틱으로 한 기본형이 4,000만 원이 넘는다.

▣ 문화탐방

가. 시청사(노벨평화상 수상식장)

로댕의 제자인 구스타브 비겔란조각공원을 지나쳐서 매년 12월 10일(노벨 서거일) 노벨상 수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오슬로 시청사를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0년에 이르러 완공되었다고 한다. 붉은 벽돌로 쌓은 좌우 대칭형 외관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이곳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겠구나’ 하는 가슴 속 깊은 울림을 간직하면서 그 체취를 느껴본다.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부문에서 '지난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상을 주도록 명시한 유언장에 따라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으며, 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리크스뱅크에 의해 추가 제정된 것으로 1969년부터 수여되었다고 한다. 노벨상은 국적·인종·종교·이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1번 이상 받을 수도 있다. 물리학·화학·생리학·의학·문학·경제학 상 시상식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지만,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수여하도록 유언한 노벨의 뜻에 따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사망일인 12월 10일에 각각 치러진다고 하는데, 대개는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여 상을 받는다고 한다. 미술관 같은 시청사 내부는 노르웨이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독일군 점령 하의 고뇌, 극복, 희망과 미래를 표현한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되어 국민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나. 브리겐 거리

노르웨이 견학 마지막 날 새벽에는 비가 왔으나 라르달로 출발할 무렵에는 햇살이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24.5km인 긴 터널을 지나 인구 1만명인 VOSS를 지나 베르겐 어시장과 브리겐 거리를 방문하였다.

어시장에 도착하니 비바람이 거세다 어시장은 1200년 초부터 내려오는 상징적으로 곳으로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이었다. 그냥 시장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산을 쓰고 한자동맹시절 독일 상인들이 거주하던 목조건물들이 있는 브리겐 거리를 산책했다.





브리겐의 역사는 14세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유럽 상권을 장악했던 북독일 무역상인 중심의 도시동맹인 독일한자 상인들이 이곳에 상관을 짓고 무역을 했다. 이 지역에 풍부한 대구를 수출하고 곡물을 수입했던 그들은 독일 남자 상인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으로, 엄격한 규율 아래 일만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베르겐은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연중 비가 오는 날이 많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다. 브리겐은 지금으로 치면 현장연수차 찾아온 독일 상인들의 본거지였다. 이곳에서 10여 년간의 훈련을 마친 이들은 본국이나 또 다른 한자동맹 도시를 거치며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는 매우 혹독한 과정으로 처음 일을 배우기 위해 브리겐을 찾은 열 살 가량의 소년들은 목조건물의 특성상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불 한 번 때지 않고 겨울을 났었다고 한다. 물론 아주 추울 때는 목조건물 군 뒤쪽에 취사를 목적으로 특별히 지어진 벽돌집에서 수십 명이 함께 잠을 자기도 했지만, 이처럼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한자동맹의 일꾼들은 당시 바다에서 나는 은색 보물이라 불렀던 대구 간유와 말린 대구를 주 사업품목으로 활발히 무역활동을 펼쳤다. 당시 이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한자 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저울에 올려진 말린 대구다. 노르웨이 건어물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곡물을 거래해서 부를 쌓았던 중세 브리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실제 상인들이 살았던 베르겐에서 가장 오래된 18세기 초 건물로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가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초보 일꾼들이 자는 방과 응접실, 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저장고였던 방은 현재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 조수들은 건물 위층에 벽으로 칸막이가 된 침대 방에서 생활하였다. 매우 좁긴 하지만, 화재의 위험 때문에 등불이나 난방을 할 수 없는 건물에서 그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었다. 브리겐 거리는 독일 한자동맹의 4개 지부 중 한 곳으로 독일인 전용주거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베르겐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노르웨이에서가 아닌 ‘베르겐’에서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이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베르겐은 곡물과 소금, 말린 대구의 중요한 교역항이었으며, 한자동맹이

아이슬란드에서 잡은 수산물을 모으는 집적소이기도 했다. 거리에는 옛날 분위기를 풍기는 레스토랑, 선물가게, 미술공예가의 작업장 등이 있다. 세계 환경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베르겐을 선정한 바 있고, 벤쿠버, 오클랜드와 함께 베스트 5에 올라 이상적인 자연친화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앞쪽 건물들에는 독신남자들이 살았고, 뒤편으로는 흥등가였다는데 현재는 박물관, 레스토랑, 선물가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옛 상인들이 사무실이나 보관창고로 사용하던 건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몇 번의 대형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본래의 도면대로 망치와 톱만을 쓰던 전통기법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1476년과 1702년의 화재는 꽤 큰 규모였는데 그 때마다 브리겐은 본래의 도면 그대로 재건되었다. 그래서 베르겐은 지금까지도 중세 후기의 도시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베르겐은 제2의 도시로 2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7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천사라고 하며, 에게와 북해에 가깝고, 주민들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고 한다. 오슬로는 법과대학, 베르겐은 상과대학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연간 강우량은 오슬로의 3배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기후변화로 많은 여행객들이 계획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도 우천으로 인해 숙소로 바로 가는데 동쪽으로 오니까 비가 멈췄다. 원래 서쪽은 비가 많고, 동쪽은 비가 적다고 한다. 1년 내내 개방되고 스키로 유명한 험세달 길을 거쳐 해방 1,137m인 산 1,001m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귀향길에 올랐다.

IV. 연수 결과물

▣ 도시공원 내 애완견 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 일 시 : 2015. 5.28. 12:00 - 13:00

○ 장 소 : 스웨덴 남강식당 뒤 공원

○ 사진설명 : (※ 20쪽 사진참조)

- 도시공원 내 애완견 보호소 정문 및 전체 광경으로 면적은 600㎡ 정도
- 애완견 보호소 내에서 산책 나온 3명의 주인들이 애완견과 친목 대화를 나누며 담소하는 모습
- 작은 애완견을 데리고 보호소에 들어서는 모습
- 애완견 보호소 대문이 사용자가 안과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각종 사용안내 표지판
- 통 안에 애완견 분비물을 버리는 곳 설치

○견학에 대한 의견

- ① 광주광역시 서구에도 근린공원 중 특히 풍암공원과 운천호수공원 등에는 자전거와 애완견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전거와 애완견 출입이 있으나 효과적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② 특히 공공 시민 산책로 입구 등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애완견 보호 지구를 설치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 있었음
- 우리 서구에서도 “도시공원 내 애완견 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연구 발의하여 점증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함

▣ 자전거 보관대 시설 설치에 관하여

○ 일 시 : 2015. 5.29. 11:00 - 12:00

○ 장 소 : 덴마크 시청사 광장 주변

○ 사진설명 : (※ 28쪽 참조)

- 여러 형태의 주차 보관대 모습

□ 견학의견 : 자전거 보관대 시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담장 등 좁은 인도 변에서 활용하고 있었음.

□ 우리 서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장소가 좁은 곳에서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현실에 맞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토록 권고.

▣ 청소(음식물)차의 리프트 시설 설치에 관하여

○ 일 시 : 2015. 5.30. 11:00 - 12:00

○ 장 소 : 노르웨이 오슬로

○ 사진설명 : (※ 34쪽 사진참조)

- 사진은 차량기사 1인이 운반물을 혼자 수집하는 광경과 리프트를 이용 한꺼번에 차량에 탑재하는 광경

□ 견학의견 : 음식물이나 대형용기에 수집이 가능한 것들은 리프트를 이용 혼자서도 수집, 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30여 년 전부터 북유럽뿐만 아니라 선진 유럽에서는 인건비용의 폭주로 인한 경비절감과 보수 인상을 위하여 리프트를 이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실제 차량의 개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사가 모든 곳을 일괄처리하는 특장차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

□ 우리 서구에서도 음식물과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 부분적으로 리프트 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토록 권고

국외연수 후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

북유럽 연수 중 의원들과 그 동안 하지 못 했던 얘기를 나누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스웨덴에서 덴마크 배편으로 오는데 약 15분 거리에 15분 간격으로 대형버스를 보고 있다. 다리를 건설하면 좋을 텐데 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양국이 다리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은 대부분 활발하며 진취적이고, 친절하며, 인구는 적고 땅은 넓어서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여가를 잘 즐기는 편이고, GNP도 4,5000~5,000 정도 대부분이네요. 특히 노르웨이는 유전발견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1인당 GNP가 9만에서 10만 달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 액수네요.

우리 한국에 비하면 인구가 적으나 잘 사는 이유는 남에게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거나 사는 사람에게 보탬이 될까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넓은 초원과 편안한 양떼들을 봤다. 척박한 땅, 하루에 백야가 19시간 정도, 인구가 적고, 기후가 좋지 않아 햇볕 드는 시간이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칸디나비아반도 나라의 GNP가 4,5000에서 5,000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특이한 복지제도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하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 정책도 좋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 부분에서 미약함을 느끼며,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은 큰 기업일수록 세금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스칸디나비아 나라는 물의 나라다. 수돗물도 계속 식용수로 먹으며, 물

의 질도 참으로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수, 폭포, 비다만 보이는 것 같다.

참으로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사람은 많이 볼 수 없었지만 터널, 호수, 산, 강, 바다로 어우러져 있는 나라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는 자연환경이야말로 최고 축복의 땅인 것이다. 산 밑에 지어진 가옥은 편안하고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멋진 풍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6월인데 산에는 눈이 녹지 않은 흔적이 많으며 녹아내리는 눈이 물로 변하여 폭포를 이루는 모습은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서유럽에 비하면 볼 것은 많이 없지만 복지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정신이야말로 최고라고 칭찬하고 싶다. 어느 연수보다 느낌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서로 협조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여유와 서로 배려하고, 단합된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넓은 호수와 자연처럼 더욱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깨끗한 물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움을 없애고, 복지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다 공부하는 의회, 발전하는 광주,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통과 화합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GNP와 기상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 동안 함께 한 동료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항상 함께 동행 하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할 것이다.

노르웨이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오늘 공항으로 이동하여 12시 30분 비행기로 3시경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여 보니 일행 중 티켓이 중복 발행되어 약간의 고생은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탑승 전 꼭 탑승권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

인성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연수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8시 55분 모스크바에서 출발하여 시차 6시간 적응하며 한국시간 6월 3일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인임에 자부심과 광주 서구의회 의원과 의장으로서 새로운 교육과 경험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하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연수를 마무리하며 같이 한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서구의회 모든 직원과 32만 구민에게도 감사드리며,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나 자신에게 거듭 다짐해 본다. 사랑합니다.